

모바일 서비스 세계 표준화 단체 「Open Mobile Alliance」설립

휴대단말기 전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나 기기 등, 여러가지 분야의 사양을 세계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단체 「Open Mobile Alliance」가 발족했다. 업계 관련의 약 200사가 참가해, 심리스(seamless) 서비스의 운용이나, 디바이스의 사양 통일을 목표로 운영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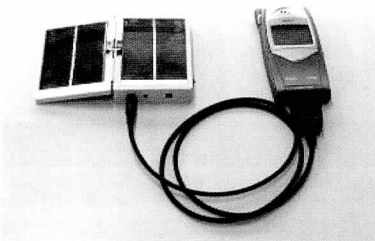
이번에 설립되는 Open Mobile Architecture에 WAP 포럼은 신조직 기반 구축에 협력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 일본은 NTT 도코모나 KDDI, NEC, 야마하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으로는 노키아,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 RSA 시큐리티, AOL 등 모바일 서비스에 종사하는 휴대전화 사업자, 디바이스 써플라이어,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참가하고 있다.

또 Wireless Village 주도권 등 기존 표준 사양 책정 단체는 동 조직에 통합되게 된다.

동조직은 「요구에 대응한 사양의 제공」 「심리스인 상호 운용을 행하기 위한 시험 센터 설립」 등 4개 강령을 내걸어 휴대단말기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각종 서비스에 대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목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openmobilealliance.org/pr2002-06-12.html>)

MS테크놀로지, 태양전지를 이용한 휴대전화전용 충전기를 개발



MS 테크놀로지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휴대전화전용의 충전기를 개발했다.

올해 안에 제품화 될 예정으로, 가격은 1만엔 이하가 될 전망.

이번에 개발된 것은 태양전지를 채용한 PDC 방식의 휴대전화전용 충전기로, 담배상자 사이즈에 태양전지를 탑재해 순정 어댑터 이용시와 거의 같은 시간에 충전이 가능하다고 MS테크놀로지는 밝혔다. 또, 축전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리

낮에 시간을 맞춰 두면 야간이라도 충전을 할 수 있다.

동사에서는 현재 주변기기 메이커와 제품화에 대해 협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제품화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휴대전화 뿐만이 아니라 휴대용 오디오나 PDA등에의 응용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제품 설명: <http://www.mstech.co.jp/handytype.solar.charger.htm>〉

가트너 저펜, 일본 휴대 판매 대수 2002년 이후에 완만한 성장 예상

가트너 저펜의 데이터 퀘스트 부문은, 일본의 휴대전화 시장에 관한 2006년까지의 예측을 발표했다. 2001년은 최종 사용자전용의 판매 대수가 전년 미달이 되었지만, 2002년 이후는 완만한 성장 경향으로 변할 것으로 동사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동사에 의하면, 2001년은 신규 계약의 성장 둔화와 기존 유저의 단말기 교체수요도 둔화세로 최종 사용자전용의 판매 대수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4058만대가 되었다.

그러나, 판매 대수 중에는, Java 기능이나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비교적 비싼 단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 2000년과 비교하면 금액 규모에서는 전년대비 15.0% 증가한 약 1.7조엔에 이르렀다고 동사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신규 수요는 성장은 향후도 둔화가 예상되지만, 단말기 교체 시장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에 W-CDMA 방식 단말기의 교체 수요가 단번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요인으로서는, 2002~2003년에 카메라 탑재 단말이나 CDMA2000 1x 대응 단말 등으로 사서 바꾸는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외에 다음 2004년에 W-CDMA의 네트워크가 현행의 PDC 같은 수준으로 정비되어 화상 첨부 메일이나 Java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등이 발단이 되어, 고속 데이터 통신 유저의 요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사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 일본의 휴대전화 판매 대수는 2006년까지 평균 5.3%의 연성장률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액면에서는 2005년 이후 보다 급속히 시장이 확대해 2002~2006년의 평균 연성장률은 11.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 야노 경제 연구소 조사, 휴대전화 판매점 구조조정

일본의 야노 경제 연구소는 「휴대전화의 유통」에 관한 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조사는 올 2월~4월에 걸쳐, 소비자 408명(인터넷 앙케이트), 1 차세대리점 11개사(인터뷰), 판매점 94개 점포(전화) 및 그 외 관계 각사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조사에 의하면, 캐리어나 대리점·판매점은 신규 수요 획득을 위해 급속히 판매망의 확대를 진행시켜 계약자는 2002년 3월말에 7000만명을 넘었지만, 종래의 판매망이나 판매 수수료 제도 전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향후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고객 유지」 「고객 탈취」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 판매점, 소비자별로 보면, 1 차 대리점은 급성장을 이루면서도 판매 수수료의 축소로 물류비나 인건비의 삭감이 진행되어 생존을 걸고 상사계 대리점의 합병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2차 이하의 대리점 및 판매점의 판매도 앞으로 법인 시장에서의 모바일·솔루션등의 시

스텝 구축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수익 구조의 쉬프트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동사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일본 6월 휴대전화 계약자 도코모 분발, FOMA는 여전히 침체

일본판 ZDNET은 지난 4일 일본의 휴대전화 사업자별 6월 계약자 속보에 대한 기사를 발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6월은 도코모가 단월쉐어를 50%이상으로 되돌렸으나 FOMA 쪽은 변함 없이 상태가 나쁘다고 밝혔다.

한편 6월에만 45만의 순증을 완수한 KDDI의 「CDMA2000 1 x」는 계속적인 순증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제3세대 휴대전화의 9할 이상은 CDMA2000 1 x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기사 내용이다.

일본 전기 통신사업자 협회(TCA)는 7월 5일 브라우저 폰 서비스 계약수를 포함한 휴대전화/PHS 등의 2002년 6월의 계약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개월간에 휴대전화 계약수는 51만 8900증가해, 7070만 8600을 기록했다.

그룹 명	2002년 6월 순증수	누 계
NTT 도코모	26만 7000	4146만 2000
au 그룹	13만 1400	1269만 1900
츠카 그룹	-3600	388만 5000
J- 폰	12만 4100	1266만 9700
휴대전화 총계	51만 8900	7070만 8600

지난 5월 단월쉐어 3위로 전략한 NTT 도코모는 6월에는 단월쉐어 50%이상을 획득했다.

통신 속도를 고속화한 「504 i시리즈」의 전국 발매와 카메라 내장형의 「SH251i」가 발매되었던 것이 크다.

그룹 명	단월 쉐어	누계 쉐어
NTT 도코모	51.5%	58.6%
au 그룹	25.3%	17.9%
츠카 그룹	-0.7%	5.5%
J- 폰	23.9%	17.9%

각 캐리어의 단월쉐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J- 폰은 꾸준히 가입자를 늘리고 있고 au그룹은 한때 가입자가 줄었으나 제3세대 휴대전화 서비스 「CDMA2000 1x」의 도입과 함께 도코모의 쉐어를 나눠가진 것 같다.

5월에는 단월쉐어로 역전했지만, 6월은 다시 차이를 낼 수 있었다

계약자 수 전체에서는 분발한 도코모이지만, 제3세대 휴대전화 서비스인 「FOMA」의 상황은 그대로다.

6월의 순증수는 불과 2200.

에어리어를 전국에 넓혔지만, 성장 쪽은 반대로 완만하게 되어 버리고 있다. 누계에서는 11만 4500에 머물렀다.

대하는 KDDI의 CDMA2000 1x 쪽은 그대로. 6월은 45만 5600의 순증을 보여 누계에서는 115만 1300. 국내의 제3세대 휴대전화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야노 경제 연구소, 2002년도의 3G휴대폰 CDMA2000 1x가 견인 예상

일본의 야노 경제 연구소는 신간 마켓 리포트 '2002-2003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총시장'에서 2002년 일본 시장 예측과 카메라 부착이나 3G휴대전화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금년 4월~6월에 걸쳐 일본 국내의 통신 사업자 각사와 휴대전화 단말 메이커, 및 그 외 관계 각사의 합계 34개사에 면접·전화 취재로 행해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규 가입자 수는 감소가 전망되는 한편 카메라 탑재 모델이 시장을 견인해 3G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92.8%로 4195만대의 출하를 전망하고 있다.

향후 단말기는 탑재 카메라 모듈의 고화소화나 액정 모니터의 고정채, 고화질화, 탑재 메모리의 대용량화를 시작하여 디지털 카메라같이 '고급 지향형'으로 고화질화 경쟁이 진행되는 한편, 10만 화소 정도의 '베이직형'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입 동향은 향후 2대째 회선의 복수 가입이나 실버층 젊은층 세대의 개척, '머신 to 머신'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개척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3G서비스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에 개시된 도코모의 FOMA의 계약 부진과 W-CDMA 방식의 출하 대수도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KDDI의 CDMA2000 1x는 금년 6월 하순에는 가입자가 100만에 이르고 있으며, 단말의 시장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도 플러스로 작용해 내년 3월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PDC 방식의 이용자가 이행하는 것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도의 3G휴대전화의 출하는 CDMA2000 1x를 중심으로 추이한다고 보여지고 있다.